

권두언

세상이 아무리 흥미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년도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사회적으로 흥미하던 때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그 명맥이 유지되었다. 지금 우리 주변의 환경은 심각하게 더럽혀 가고 있다.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하늘을 접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시간을 내어 멀리 교외로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아울러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환경이 더러워지면, 이러한 자연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점점 어렵게 된다. 비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받게 됨은 불문가지이다. 성경에 나오는 고대 도시들의 자연환경에 대한 묘사는 오늘날 해당도시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이스라엘의 고대환경을 묘사하는 말 가운데에는 오늘날 현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짐승들과 나무들이 종종 등장한다. 이는 그 만큼 그 당시의 자연환경이 오늘날과 같이 척박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주변의 환경오염에 대해서 무감각한 태도를 지녀서는 안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의 보전과 유지를 위하여 우리의 생각을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

또한 인간의 문명이 발전되면서 종전과는 전혀 다른 문명의 이기가 우리 생활 깊숙히 들어오고 있다. 예를 들어 비디오, 무선전화기, 팩스, 컴퓨터 통신, 멀티미디어 등은 이전에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인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은 이러한 문명의 이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가?

이번 통합연구지는 바로 이상에서 언급한 두 가지 주제를 특집으로 하여, 심층적인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이번 특집호에 실린 논문은 모두 6편이다. 이는 95년도 통합연구학회에서 발표된 관련논문을 선택하여 이를 수정게재한 것이다. 우선 이번 호에 실린 논문제목과 그 저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개발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 (옥치상)
- ② '성경적 토지법과 땅세경제' (이대환)
- ③ '성장과 복지의 정치사회적 진단과 대안' (오정수)
- ④ '환경문제와 기독교 윤리' (김진성)
- ⑤ '지속가능한 사회와 생태학' (유정철)
- ⑥ '멀티미디어와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기독교적 고찰' (강철호)

우선 옥치상 교수의 논문은 무분별한 개발 위주의 환경관을 지양하고, 그 대신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방법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대환 교수의 논문은 저자의 일관된 성경적 토지법에 대한 접근방법을 보여 주는 논문으로서, 현재 우리들이 처하고 있는 왜곡된 소유권 위주의 토지정책을 저자의 날카로운 성경적 시각으로 비판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성경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오정수 교수의 논문은 성장지상주의로 치달고 있는 경제개발정책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부정적 측면에 대해 메스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하웁츠바르트가 강조한 '진보주의'라는 우상에 대한 경각심과 아울러 그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진성 교수의 논문은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논리에 대하여 기존의 경제학적 접근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이고, 오히려 기독교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온전한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유정철 교수의 논문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위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성경에 입각한 진정한 생태주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여러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철호 교수의 논문은 최신 문명이기인 멀티미디어 및 정보통신 기술로 야기되는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환경과 문명의 흐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무지하다면, 또 그분의 음성에 귀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경고를 간과한다면, 이는 마치 자기를 위하여 오신 예수를 자기 손으로 죽인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려깊게 준비하신 환경과 문명의 혜택을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 통합연구지를 통하여 느끼기 바란다.

1996년 4월 화창한 어느 봄날
서울 종로구 명륜동 한자락에서

이진창 올림